

천국은 마치

오리엔테이션

□ 과목명 : 예수의 비유 읽기 “천국은 마치”

□ 담당 : 전치상 목사

□ 일정 : 2025.9.14. 개강(8주간)

※ 교회와 강사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음

□ 방법 : 온라인 녹화 (유튜브 링크)

□ 링크 : 매 주일 오후에 문자로 전송

□ 강의안 : 교회 2층 로비 비치, 홈페이지>교육/양육>바이블칼리지 게시판에서 다운로드

□ 과제 : 강의 내용에 따라 성경을 다양한 번역본으로 읽고, 듣고, 생각해 보기

□ 수료기준 : 8강 중 6강 이상 수강

□ 온라인 출석 체크 : 강의를 다 들으신 후에 댓글을 남겨 주세요.

(댓글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나 카톡을 주시면 됩니다.)

□ 강의 시 참고 도서

1.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비유(김진욱)
2.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/ 예수님의 비유(게네스 E. 베일리)
3. 예수가 하려던 말들(김호경)
4. 예수님의 마음 알기(김병삼)
5. 예수로 읽는 연대기 성경 공부 신약2. 비유와 기적(LifeWay Adults)
6. 목회와 신학 2025-08 오늘을 위한 예수님의 비유 10선
7. STUDY 공명(共鳴)의 자료(전치상)
8. 기타 주석 및 논문



돌아보기

1. “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.” 한 주간의 삶을 잠시 돌아본다면?
2.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?
3.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려운 것은?

비유

- 마 13:3 “예수께서 비유(παράβολη)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”
파라볼레
- 비유(比喩 견줄 喩 깨우칠) : ‘곁에’, ‘옆에’(para) + ‘던지다’, ‘놓다’(ballo) = ‘옆에 놓는다’
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이해시키기 위해 다른 대상을 나란히 놓아 비교하는 방식
- 복음서에 40여 개의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나옴. 예수님 말씀의 1/3에 해당(비유만 말씀하지 않음)
- 비유 :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고 풀어서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도구이자 문학적 장치
- 현재 우리에게 비유가 어려운 것은 성경 시대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임

천국? 하나님의 나라?

- 마 4:17 “회개하라 천국(βασιλεία τῶν οὐρανῶν)이 가까이 왔느니라”
바실레이아 톤 우라논
- 천국(the kingdom of heaven): 마태복음①(복음서에서 유일), 디모데후서 4:18
- 막 1:15
“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(βασιλεία τοῦ θεοῦ)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”
바실레이아 투 데우
- 눅 4:43
“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”
- 마 4:23
“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
- 하나님 나라(the kingdom of God)
 - :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, 복음
 - : ‘나라’ : מַמְלָכָה, βασιλεία, 통치권, 다스림의 의미 (단 2:44)
마르쿠스 바실레이아
 - : 세상의 제국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,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
 - : ‘이미’(already) 임하였고, ‘아직’(not yet) 완성되지 않은 나라 (눅 17:21)



- ‘천국은 마치’ :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,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, 그 가치와 삶을 강조하며, 결국 그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가르침
- 회개 : 이전에 세상을 주인으로 여기며,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 복음을 받아드리는 것
하나님을 주인으로 따르며 그분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, 주도권을 양도하는 것

① 마태복음은 일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. 유대인들은 ‘하나님’을 함부로 쓰지 않고 ‘하늘’을 즐겨 쓴다.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 또는 역사의 마지막에 도래하게 될 왕국만을 의미하지 않는다.

- 주후 1세기 중동 지역의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, 종교의 상황에서 보는 것이 필요함
- 메시지의 하나의 중요한 요점을 찾는 것이 필요함 (알레고리적 해석(여러 장치에 의미를 크게 부여)을 피함)
- '하나님 나라 관점'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
- 비유의 문학적 구성과 흐름 가운데서 주인공이 누구이며, 무엇을 초점으로 전개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함
- 비유를 수록하고 있는 복음서의 의도와 독자들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야 함
- 과학의 관점이 아닌 예술적 관점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비유를 접근하고 해석해야 함

[다음 강의]

마태복음 13:1-9 “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”

[새번역 성경]

3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.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. “보아라,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.
4 그가 씨를 뿌리는데,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, 새들이 와서, 그것을 쪼아먹었다.
5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짜 밭에 떨어지니, 흙이 깊지 않아서 썩은 곧 낫지만,
6 해가 뜨자 타버리고,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.
7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,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.
8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, 어떤 것은 백배가 되고, 어떤 것은 육십 배가 되고,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었다.
9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.”

[새한글 성경]

3 예수님은 많은 것을 비유를 들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.
“보세요,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.
4 그가 씨를 뿌리는데, 어떤 것들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.
그러자 새들이 와서 그것들을 쪼아 먹었습니다.
5 다른 것들은 흙이 별로 없는 돌투성이 밭 위에 떨어졌습니다. 그리고 곧바로 썩이 돌아났습니다. 흙이 깊지 않아서입니다.
6 그러나 해가 떠오르자 타들어 갔고, 뿌리가 없어서 말라 버렸습니다.
7 다른 것들은 가시덤불 위에 떨어졌습니다. 그리고 가시덤불이 자라나 숨을 막아 버렸습니다.
8 다른 것들은 좋은 흙 위에 떨어졌고, 열매를 맺었습니다. 어떤 것은 100배, 어떤 것은 60배, 어떤 것은 30배나 맺었습니다.
9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.”

[메시지 성경(허계영)]

3-8 예수님께서 배를 강대상 삼아,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. “어떻게 생각하시요? 어느 농부가 씨를 심었소. 씨를 흠뿌려가며 심었는데, 어떤 씨앗은 길 위에 떨어져, 새들이 먹어버렸소.
어떤 씨앗은 자갈밭에 떨어져, 금세 썩어 탔지만, 뿌리를 내리진 못했소.
그리고 해가 뜨자, 곧 말라 죽었소.
어떤 씨앗은 잡초밭에 떨어져, 거기서 자라났지만, 잡초 틈에 엉켜 버리고 말았소.
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, 기대 이상의 풍성한 추수를 거두었소.
9 여러분, 잘 듣고 있소? 정말 잘 듣고 있는 거요?”



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,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
“천국은 마치”

한영교회